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대인 문학박사(오스카미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촌성,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평창 롱패딩’ 깜짝 열풍...롯데백화점 함박웃음

(롯데백화점 자체 개발 상품)

구스 비율 80%, 14만원대 ‘역대급 가성비’ 온라인서 15일 만에 1만 개 팔리며 매진 롯데백, 매장 긴급물량 투입 드라이브



유통

겨울 패션 시장에 불어닥친 ‘평창 롱패딩’의 인기 덕에 롯데백화점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상품인 구스 툰다운 점퍼 벤치파카, 일명 ‘평창 롱패딩’이 돌풍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 롱패딩’은 동계올림픽 총괄 라이선스 사업권자인 롯데백화점이 자체 개발한 상품이다. ‘평창 온라인 스토어’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온라인몰 엘롯데, 롯데백화점 ‘2018 평창 공식 스토어’에서 독점판매하고 있다. ‘평창 롱패딩’의 인기는 ‘없어서 못판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뜨겁다. 10월26일 ‘평창 온라인 스토어’에 처음 등장한 이후 불과 15일 만에 1만 개가 팔리더니 금세 품절상태를 기록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롯데백화점 본점과



일명 ‘평창 롱패딩’이라 불리는 ‘구스 툰다운점퍼 벤치파카’가 큰 인기를 끌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총괄 라이선스 사업권자인 롯데백화점이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모델들이 롯데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평창올림픽 공식 스토어에서 이달 초 ‘구스 툰다운점퍼 벤치파카’ 등 겨울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오프라인 매장 ‘2018 평창 공식 스토어’에서도 빠른 속도로 준비했던 물량이 모두 팔리며 매진을 기록했다.

기대 이상의 인기에 놀란 롯데백화점은 급히 18일 본점에 2만3000개를 추가입고 했으나, 나머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객들로 인해 급

소진됐다. 22일 ‘2018 평창 공식 스토어’를 통해 마지막 입고를 할 예정이지만, 고객 안전 등을 고려해 장소 및 물량을 조절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평창 롱패딩’의 붐은 무엇보다 뛰어난 가성비 비가 큰 몫을 했다. 거위솜털 비율이 80%나 되는 구스 툰다운이지만 가격은 14만9000원에 불과해 비슷한 품질의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크게 저렴하다. 제품에 평창올림픽이나 공식 후원사인 롯데백화점을 나타내는 로고나 문장이 없이 평창동계올림픽 슬로건 ‘Passion, Connected’만 새겨진 깔끔한 디자인도 구매욕을 자극하는 중요한 매력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은 겨울 시즌 ‘깜짝 스타’의 등장에 즐거워하면서도 표정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기대치 이상으로 소비자 반응이 좋아 내부적으로 크게 고무됐다”면서도 “고객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서 혹여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물량수급이나 판매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3일~17일

코스피지수	2533.99	▲	+3.64
코스닥지수	775.85	▲	+34.47
일 낮케이 지수	2만2396.80	▲	+15.81
중 상하이 종합	3382.91	▼	-64.9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74	▼	-0.006
환율 (원·달러)	1099.50	▼	-22
국내금값 (원/그램)	4만5306.44	▼	-728.44

지수는 17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이건희 회장, 자산 24조원 세계 37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이 추가 상승에 힘입어 세계 부호 40위에 진입했다. 미국 블룸버그가 조사한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순재산은 17일(현지시간)

기준 222억 달러(약 24조4089억 원)로 세계 37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 회장은 순재산이 80억 달러(8조7960억 원)이 늘었다. 이 회장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해 말 180만 원 선에서 17일 279만 원 선으로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기업이 가운데 세계 100대 부호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 또한 아태지역 부호에서도 이회장은 8위에 올랐다. 한편, 아태지역 최대 부호는 다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으로 재산이 474억 달러(52조 원)로 집계됐다.

비즈 TALK TALK

- “한식은 과하게 비싸거나 특정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니어서 대중화하기 좋다.” (미슐랭 스타 14개 보유한 스타 셰프 고든 램지, 18일 한국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뉴욕 한식당 ‘꽃’(COTE)을 언급하며 한식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신남방정책 효과적, 성공 위해선 기업경쟁력 확보 중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7일 보고서에서 사드배치 갈등으로 대두된 ‘중국 리스크’를 낮추고 아세안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신남방정책을 평가하면서)
-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료제 및 진단기기 제품화 적극 지원” (류영진 식약처장, 17일 성남시 치매치료제 개발업체 미디어포스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데이터 경제

서울, 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도시 7위

19일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2017 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도시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국인 방문객은 1239만명으로 세계 주요도시 중에 7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세 계단 상승했다. 여행객 인기 도시 1위는 방콕이 1941만명으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어 런던(1906만명), 파리(1545만명), 두바이(1487만명), 싱가포르(1311만명), 뉴욕(127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 이어 쿠알라룸푸르(1128만명), 도쿄(1115만명), 이스탄불(916만명)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순위	도시	방문객
1위	방콕	1941만명
2위	런던	1906만명
3위	파리	1545만명
4위	두바이	1487만명
5위	싱가포르	1311만명
6위	뉴욕	1270만명
7위	서울	1239만명
8위	쿠알라룸푸르	1128만명
9위	도쿄	1115만명
10위	이스탄불	916만명



편집 이수진 기자

네이버 콘텐츠를 LG AI스피커로 즐긴다



AI스피커 ‘쌍규 허브’

올해 초 인공지능(AI) 부문에서 손을 잡아 업계의 주목을 받은 LG 전자와 네이버의 첫 제휴 성과물이 나왔다. LG전자는 네이버의 AI플랫폼 ‘클로바’를 적용한 AI스피커 ‘쌍규 허브’를 19일 공개했다. 4월 출

시한 쌍규 허브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AI플랫폼을 탑재해 대화를 통해 집안 가전제품의 상태를 알려주고,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음악, 교통, 지역, 생활정보, 번역, 영어대화, 뉴스, 검색, 팟캐스트 등 네이버 클로바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하이 LG, 근처 맛집 찾아줘”라고 말하면 주변 맛집의 상호와 연락처를 화면과 음성으로 알려준다. 음성지시로 네이버 뮤직이 제공하는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새 쌍규 허브는 LG베스트샵 매장에서 만

날 수 있고, 가격은 판매가 기준 24만9000원. 구매자에게 스마트 전구 및 스마트 플러그를 함께 제공한다. 기존 쌍규 허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제품 펌웨어를 업데이트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더욱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AI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할 방침이다. 네이버와는 쌍규 허브 외에도 클로바를 활용한 다양한 AI 기기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현재 네이버를 포함해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아마존과, 올해엔 구글과 손을 잡고 AI를 활용한 스마

트용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LG 스마트가전과 연동되는 AI플랫폼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플랫폼 외에 ‘구글 어시스턴트’, ‘알렉사’, ‘클로바’ 등으로 늘었다. LG전자와 네이버의 경우처럼 AI 서비스 경쟁을 위한 기업들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기업과 경쟁 관계인 삼성전자와 카카오톡의 협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톡은 10월 스마트 가전 서비스 구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광고 보면 내 이웃에 기부”...SK이노베이션 캠페인 화제

사이메틱스 아트 기법 기업PR 캠페인 이달 말까지 누적 조회수 두 배 기부



“여러분의 광고에 대한 관심이 곧 기부가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기업광고와 사회공헌을 잇는 새 도전을 시작한다. 새 기업PR 캠페인(사진)을 SK그룹의 ‘행복 나눔의 계절’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와 연결, 캠페인 조회수에 맞춰 기부액을 결정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SK이노베이션이 9월 선보인 기업 광고 캠페인 ‘이노베이션의 큰 그림’ 세 번째 편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하루 평균 20여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현재 1470여만 건으로 1편 ‘드로잉’이 기록한 조회수 1428만 건을 넘었다. SK이노베이션은 높은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광고와 사회공헌 기부를 연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11월 말까지 누적되는 기업 광고 캠페인 조회수 두 배를 사회공헌을

삼성 ‘아이지킴’ 사용자 4만명 돌파



112‘애플리케이션(이하 앱·사진)의 사용수가 1년 만에 4만 명을 돌파했다. 아이지킴 112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의

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삼성전자의 비용 지원과 임직원 멘토의 기술 지원으로 완성했다. 교육자료, 관련 법령, 체크리스트, 익명 문자신고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김명근 기자

롯데유통BU, 전국 5개 지역 연탄전달 봉사 롯데그룹의 유통사업을 총괄하는 롯데유통BU가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12월8일까지 수도권, 부산, 광주, 포항 등 전국 5개 지역의 불우

경제현장.jpg 에버랜드 겨울축제 ‘크리스마스 판타지’ 개막



에버랜드가 겨울 축제 ‘크리스마스 판타지’를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매지가 든은 산타 클로스과 함께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루돌프를 주인공으로 한 ‘루돌프 블리자드’로 꾸민다. 지난 겨울, 호평을 받은 ‘별빛 동물원’은 올해 정문 글로벌 페어에 조성한다. 매일 낮에는 1~2회에 걸쳐 어린이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블링블링 X-mas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사진제공 에버랜드



‘발상공동체 연탄은행’에 4억원 상당의 연탄 50만장을 기부한다.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사진)을 진행한다. 롯데유통계열사 임직원 및 고객, 파트너사 등 800여명이 참여해 연탄과 함께 방한용 경량 조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정정욱 기자

부고

정진행 현대차 사장 모친상 <임원재씨 별세, 정진은 전 대학교수>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진행 현대차 사장·진철 당진에 코파워 사장·진민씨 정내과 원장 모친상, 김승권 전 대학교수·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송용완 씨 사업 빙모상, 박현욱·윤정민씨 시모상 =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천안시 풍산공원묘원. (02)3010-2230